

한옥마을 연중 문화행사 ‘기대되네’

시, 여행성수기 집중 된 프로그램 1년 내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조정 검토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속가능한 한 여행지로 만든다.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연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4월과 10월 사이 여행성수기에 집중된 전주한옥마을 내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 자체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경기전 광장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문화행사와 공연들을 전주한옥마을 전 지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연말까지 2019년 전주한옥마을에서 운영될 문화행사를 파악하고, 내년 1월에는 연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연중 문화콘텐츠로 가득한 한옥마을 만들기에서 나서는 것은 문화행사와 축제, 공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전주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콘텐츠를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운영시기와 운영장소가 편중되어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행사는 야외활동하기 좋고 여행객이 많이 찾는 4월부터 10월 사이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고, 11월부터 3월까지의 상

설로 운영되는 문화공연과 행사가 적어 이곳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문화공연 등이 펼쳐지는 장소도 접근성이 좋고 공간이 넓은 경기전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동절기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연중 상설 운영되는 전주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의 시설별 콘텐츠 운영 시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옥마을의 품격에

맞은 전통문화 공연과 잔잔한 현악기 공연, 여행객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운영하고, 야외공연이 어려운 한파와 폭염시에는 태조로와 은행로 중심의 국악 음악방향을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한 겨울에는 여행객들이 따뜻한 실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공예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운영 장소도 전주한옥마을을 △경기전 권역 △은행로 권역 △향교길 권역 △오목대 권역 △공영주차장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

누고, 각 권역별로 매주 주말 장소별 특색있는 문화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균형있는 콘텐츠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문화콘텐츠 연간 운영방안이 수립되면 내년에는 각 권역별로 문화공연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0년부터는 각 권역별 문화콘텐츠 사업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각 권역별 어울리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악버스킹 공연 △소리없는 버스킹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각종 현악기를 활용한 버스킹 공연 △전통문화 공연, △남궁낭자 홍보단 사업 △스튜디오 투어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여행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한옥마을 콘텐츠 운영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역사적·문화적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이 전주한옥마을 전역에 들어서 있고, 한옥마을의 품격과 정스러운 공간이 녹아있는 한옥담장과 골목길, 외곽의 아름다운 전주천 산책길, 오목대 둘레길 등 전주한옥마을의 매력과 잠재력은 끝이 없다”며 “현재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자원들을 문화콘텐츠로서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의 시기적 장소적 특성에 맞는 콘텐츠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꿈을Luck 꿈을樂’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예술동아리 성과공유회’가 지난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꿈을 Luck 꿈을 樂”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14개 시, 군 예술동아리가 참여해 방송댄스, 오키나와, 색소폰, 시 낭송, 캘리그래피, 수묵화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며,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참여의 장이 됐다.

이날 참여한 공연예술 동아리는 ▲비바체 통기타(군산), ▲Play Together Saxophone(부안), ▲파이브미닛(무주), ▲사미르댄싱맘(김제), ▲바람소리오키나와(부안), ▲청송소리(김제), ▲천동소리나타(군산), ▲캐어리방송댄스(순창), ▲장수사물놀이(장수), ▲팅기니(완주), ▲소리리벨(완주), ▲휴파리(완주), ▲남부시장의 시울림(익산), ▲북부시장의 하모니 동창생(익산), ▲국사모(익산)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전시예술 동아리는 ▲민화이야기(전주), ▲화복회(정읍), ▲허브향기(완주), ▲글로리(무주), ▲뚝딱

망치(남원), ▲맑은누리(남원)가 전시를 펼쳤다.

재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서 2억 원을 확보해 지난 2018년 8월 전라북도 14개 시, 군 53개 예술동아리를 선발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예술동아리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의 풍성한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남부시장의 시울림 동아리 회장 김영주 씨는 “교육 강사비 지원이 동기부여가 돼,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김민득 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예술동아리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재단은 생활문화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교도소 수용자의 사회복귀 돕는다

완산도서관, 전주교도소와 독서문화 활성화 협약

국가대표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가 교도소 수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올바른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도서관과 전주교도소(소장 류기현)는 18일 전주교도소 직원 교육실에서 류기현 전주교도소장과 박용자 완산도서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도서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자아발견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양증진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정보문화 접근권 향상을 위해 독서토론회 및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독후감 대회 등 수용자

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양도서를 보급하고,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기현 전주교도소장은 이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부흥에 힘쓰시는 전주시 완산도서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협약이 수용자들의 지적 감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로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소외된 수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독서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국민 사기극 일자리 양성사업 폭로한다” 국민 사기극 일자리 양성사업 폭로 기자회견이 18일 전주시 고용노동부청사 전주지청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님인 척 하다가”

화장품 가게 물품 절도범 들미

화장품 가게에서 손님인 척 물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29)는 지난 12일 오후 2시 24분경 전주시 완산구 B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진열된 시가 2만원 상당의 마스크 팩 4장을 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당일 오후 3시 20분경 인근 C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립스틱 3개를 절취해 총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이향로 진안군수

검찰에 다시 출석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향로(61) 전복 진안군수가 18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첫 소환된 지 8일 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가 불려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군수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플러스터사업단 김모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측근들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군수와의 연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중에 이 군수의 처벌 수위 등을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 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강석훈 기자

시공 능력 없는데 차선도색 공사라니?

불법 하도급·남은 자재 횡령 업자·공무원 무더기 입건

지자체가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 받아 불법 하도급과 남은 자재를 횡령한 업자 13명과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A모씨(36) 등 13명(업체12곳)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담당 공무원 B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모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에서 발주한 21건(공사금액 17억 상당)의 공사를 낙찰 받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모씨는 자재검수와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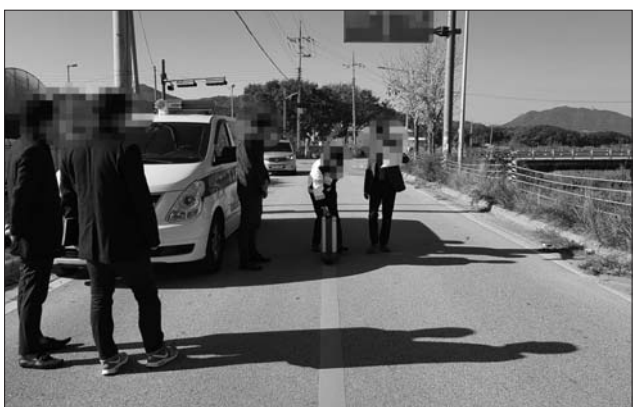
이들은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낙찰 받았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자재검수와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에 수사에 착수, 불법 하도급과 공사 감독자의 형식적인 관리 및 허위 측정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다른 업체 하도급 사실을 확인 후 불법 하도급으로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점검해 노면표시 반사 성능과 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공사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은 “차선 부실 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복지시설에 400만원 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송병호 본부장)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전북지역의 복지센터 등을 방문, 위문활동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문 활동은 남원시외사립복지센터를 비롯한 원주자활센터에 냉장고, 온누리상품권, 희망상품 등 4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공단은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지원들이 작은

정성을 담아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도움을 주고자 선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단 이장규 안전관리처장은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해보다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